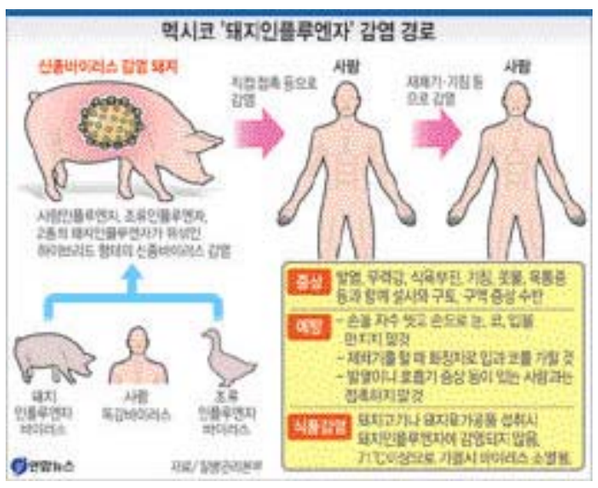
■ 돼지 인플루엔자에 대한 궁금증



호흡기 통해서 감염 가열해 먹으면 안전

멕시코발(發) 돼지 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SI) 공포가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다.

미국과 북미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SI 인체감염증 추정환자가 발견되면서 돼지 인플루엔자에 대한 의문도 높아지고 있다. 돼지 인플루엔자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돼지 인플루엔자는 어떤 병인가=돼지에게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주로 봄, 가을에 발생하는 전염병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감염된 돼지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에게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감염경로는=감염된 돼지로부터 사람으로 또는 감염된 사람에서 돼지로 직접 전파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극히 드물다. 주로 사람으로의 감염은 돼지우리, 가축시장 등에서 감염된 돼지와 밀접한 접촉에 의해 발생한다. 사람 간의 감염은 일반적인 독감과 마찬가지로 재채기나 기침 처럼 공기를 통해 이뤄진다.

▲증상은=독감(인플루엔자) 증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발열과 무력감, 식욕부진,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콧물, 인후통, 오심, 설사와 구토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 뒤 7일간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

▲치료는 가능한가=사람이 맞는 독감 백신은 돼지 인플루엔자에 효과가 없다. 다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릴렌자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돼지고기 먹어도 안전한가=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식품으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돼지육 가공품을 섭취하는 것으로는 돼지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는다. 또한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1℃이상 가열하면 사멸된다.

▲인체감염을 막기 위해서는=마스크 착용이 도움은 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을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90~120㎝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재채기를 할 때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람이 없는 쪽에 해야 한다.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수시간 동안 생존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자가 만진 문 손잡이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양돈·여행업계 직격탄

돼지 인플루엔자 여파 돼지고기 소비 급감

"멕시코산 돼지 곱창 11.7t 시중 유통"

국내에서도 돼지인플루엔자(SI) 추정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그 후폭풍이 양돈업계와 여행·요식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불황 속에 SI 악재까지 겹치면서 관련 업계는 파장이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돼지고기 '기피현상'=SI 발생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겹살을 중심으로 상한가를 달리던 돼지고기의 소비가 꺾였다. 나들이 철이 다가오면서 돼지고기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시점에 소비량이 되레 감소하자 업계는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광주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27일 현재 돼지고기 매출액이 전주 대비 30% 감소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홈플러스 계림점도 SI 소식이 전해진 뒤 돼지고기 매출액이 15%씩 줄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하루가 다르게 전해지는 SI 소식에 돼지고기 소비도 점차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돈업계는 SI 직격탄을 맞았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돼지 한 마리(110kg)의 현지 가격은 35만2천원으로 25일 37만1천원보다 1만9천원 하락했다. 양돈업계 관계자들은 "벌써 돼지 인플루엔자 소식 때문에 돼지값이 마리당 5만원가량 떨어졌다. 이번 상황이 언제 잠잠해 질지 걱정"이라며 한숨지었다.

◇요식업계 '울상'=광주시 북구 용봉동 모 식당 주인 김모(여·45)씨는 "SI 소식이 전해진 뒤 돼지고기를 찾는 손님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구 화정동에서 고깃집을 하는 이모(37)씨는 "가뜩이나 경기가 좋질 않아 손님이 줄었는데, SI 여파로 이전보다 매출이 30%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중남미 발길 '뚝'…확산 우려=여행업계도 울상이다. 중남미 여행 코스는 아예 팀이 없어질 상황에 처했다. 광주지역 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남미여행 팀이 5월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여행업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여행객들에게 여행지와 SI와의 관련성이 적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또 SI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중국과 동남아 여행객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SI 감염 우려가 있는 멕시코산 돼지 내장이 국내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다고 28일 쿠키뉴스가 보도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멕시코산 돼지 내장이 지난 해 10t이 수입됐고 올들어 3월까지 1.7t이 유통됐다는 것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조선대 입학설명회 조선대학교는 28일 의성관에서 광주, 전남·북 지역 345개 고등학교 진학부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0학년도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치마 벗겨 체벌' 10여명이 받았다

광주시교육청 1차 진상조사서 사실로 확인

광주 C여고 여교사가 성적이 나쁜 학생들에게 교복 치마를 벗게 하는 체벌을 줬다는 보도<본보 28일자 7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선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시 교육청은 28일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학교 영어교사가 수업도중 일부 여학생에게 치마를 벗게 하는 체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시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영어 담당 여교사는 수업시간에 본 쪽지시험에서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 교복 치마를 벗은 채 무릎을 꿇도록 하고, 교탁 주변을 돌게하는 벌칙을 줬다.

이 같은 벌칙은 신학기인 지난달 쪽지시험에서 '0점'을 맞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10여명이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치마를 벗고 교탁 뒤에서 2~3분간 무릎을 꿇다가 제자리로 되돌아갔고, 일부는 치마를 벗은 채 교탁 주변을 왔다갔다하는 벌을 받았다고 시 교육청은 설명했다.

문제의 여교사는 진상조사에서 "성적이 너무 나쁜 아이에 대한 벌칙의 하나로 학생들이 제안한 '이마 매맞기'와 '치마 벗기' 중 하나를 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학생들이 이 같은 벌칙을 제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치마를 벗고 교실을 돌게 하는 벌칙까지 줬다"고 반박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과 논의해 정했다 하더라도 체벌방식이 적절치 않으므로 정확한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교육청은 이 같은 체벌이 재발하지 않도록 광주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체벌 방지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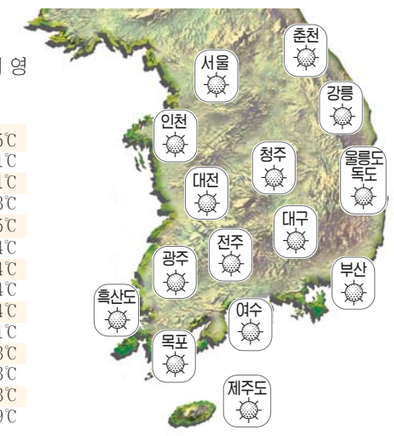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14분 해짐 19시 16분 달뜸 08시 47분 달짐 --시 --분

출근길 안개 조심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광 주	맑 음	7/25℃
목 포	맑 음	8/21℃
여 수	맑 음	11/21℃
완 도	맑 음	8/23℃
구 례	맑 음	3/25℃
해 남	맑 음	3/24℃
장 흥	맑 음	3/24℃
고 흥	맑 음	4/24℃
순 천	맑 음	7/24℃
영 광	맑 음	4/21℃
진 도	맑 음	5/23℃
전 주	맑 음	6/23℃
남 원	맑 음	3/23℃
흑산도	맑 음	10/19℃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먼바다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동	0.5~0.5m
먼바다	서~북동	0.5~0.5m

	밀물	썰물
목포	05:08 17:05	10:14 22:15
여수	11:37 --:--	05:46 17:4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0(목)	5/1(금)	2(토)	3(일)	4(월)	5(화)
날 씨						
최저/최고	8/26	9/26	12/22	13/22	11/24	10/26

'광주인권상' 시상식 시민 518명 초청

5·18 기념재단

5·18 기념재단이 '2009 광주 인권상' 시상식에 시민 518명을 초청한다. 시민들이 시상식에 초청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5·18 기념재단이 올해 처음으로 '2009 광주 인권상' 시상식에 시민들을 초청한 이유는 광주 인권상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기존엔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 정치인, 5월 단체 등의 주요 인사들만 참석했었다.

시상식은 다음달 18일 오후 5시 5·18 기념문화관에서 열린다. 초청 인원은 518명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자격은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마감은 다음달 7일까지다. 참여 시민에게는 오월 문화공연 '난장·인·프리' 특별초대권과 함께 기념품이 주어진다. 문의는 062-456-0518.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세종고 파행 9년만에 정상화

사분위, 정이사 7명 선임

광주 학교법인 유성학원의 세종고가 파행 9년만에 정상화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8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세종고에 대한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 7명을 선임하는 등 정상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성학원의 정상화는 2000년 4월 임시이사(관선이사) 파견 이후 9년만이다. 시 교육청은 설립자와 전 이사장 간 법인 운영권 다툼 종결, 학사운영 정상화, 육영의지를 갖춘 제3자 재산 출연 등에 따라 이번 정상화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사분위가 통보한 정이사에 대한 신원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취임하도록 할 계획이다.

1986년 설립된 이 학원은 그동안 설립자와 전 이사장 간 법인 운영권 다툼과 불법 운영 등으로 시 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임시이사가 5차례나 파견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